



# 우리 산업의 경쟁여건 국제비교

산업자원부 제공

산업자원부는 IMF외환위기 전후 우리 나라 주요 요소비용의 경쟁력 실태를 OECD, IMD, ILO 등 외국 주요 기관의 통계자료와 국내 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분석하였음

그 결과 최근 우리 산업의 경쟁여건은 비용측면에서 금리를 제외한 임금, 물류, 입지 등 주요 요소비용의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 R&D여건이나 IT기반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던 주요 요소비용이 경기가 회복된 지난99년 이후 상승추세가 지속되어 기업의 비용경쟁력에 부담요인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물류비용은 GDP대비 비중(16.3%)과 매출액대비 비중(12.5%)이 미국(10.1%, 9.4%)이나 일본(10.6%, 5.9%)보다 높고 뚜렷한 개선효과도 보이고 있지 않아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

입지비용도 임대료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가격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상승추세로 반전되고 있어 기업 비용부담을 악화시킬 가능성

또한, 노동비용도 아직 절대적인 임금수준(시간당 \$6.71)이 미국(\$19.2)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임금·노동비용의 상승속도는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특히, 정규직근로자 보호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에 기록되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적대적 노사관계(IMD기준 46위)가 기업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다만, 금리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개선 노력에 힘입어 97년말 15%에 육박하던 대출금리가 2001년 한 자리 수인 6%대로 크게 인하되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1. 국제비교 필요성

- 우리 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대외적으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



	'97	'98	'99	'00	'01
· 한국의 국가경쟁력	30위	36위	41위	28위	28위

\* [2001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01. 4월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 경제성장, 수출, 고용 및 실업 등 양적 측면에서의 성과에 기인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실업율(%)	
'98	'00	'98	'00	'98	'00
△6.7	8.8	△2.8	19.9	6.8	4.1

○ 질적 측면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주요 분야별 국제순위 >

경제제도기구	기업경영환경	인적자원	노동시장 여건	경제인프라
34위	44위	32위	35위	35위

\* [2001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01. 4월

□ 질적인 경쟁여건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한계

○ 따라서, 우리 산업의 경쟁여건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 II. 경쟁여건 국제비교

### 1. 금융시장 여건

□ 금리수준은 98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한자리수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기록

	'90	'95	'98	'99	'00	'01
· 콜금리(%)	13.65	12.49	14.91	4.92	5.05	4.63
· 회사채 수익률(%)	16.48	13.79	14.99	8.86	9.25	7.04



○ 또한, 기업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에 크게 기여

	'96말	'97말	'98말	'99말	'00말	'01.11월
·기업대출금리(%)	10.94	14.98	10.96	8.17	8.11	6.78
- 대기업(%)	10.86	17.10	11.20	8.52	8.66	6.74
- 중소기업(%)	10.97	14.34	10.89	8.03	7.82	6.79

□ 이에 따라,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과 금리수준 격차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 98년 큰 차이를 보이던 금리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금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싱가포르	
	'98말	'01.11월	'98말	'01.9월	'98말	'01.9월	'98말	'01.8월
·콜금리(%)	14.91	3.97	4.68	3.07	0.25	0.005	1.72	1.70
·대출금리(%)	10.96	6.78	7.75	6.28	6.25	2.62	5.90	5.80

\* 미국 콜금리는 연방기금금리, 싱가포르 콜금리는 3개월 단기수신금리 기준

\* 미국·싱가포르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기준

□ 이러한 금리인하에 따라 99년 이후 우리 산업의 경영성과는 크게 개선되는 추세

	'90~99	'97	'98	'99	'00
·부채비율(%)	302.4	396.3	303.0	214.7	210.6
·매출액경상이익율(%)	-	△0.3	△1.8	1.7	1.3

\* 2000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01. 6월), 제조업 기준

○ 그러나, 아직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 등 기업의 재무구조는 주요국에 비해 낙후된 수준

- 이에 따라 우리 제조업의 경우 금융비용이 높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큰 차이가 발생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98	'00	'98	'99	'98	'99	'95
· 부채비율(%)	303.0	210.6	158.9	164.3	173.6	174.0	85.7
· 자기자본비율(%)	24.8	32.2	38.6	37.8	36.6	36.5	53.9
· 차입금/매출액(%)	62.7	42.7	26.1	27.8	33.5	33.1	32.6
· 매출액영업이익율(%)	6.1	7.4	7.5	7.7	2.5	2.9	7.3
· 매출액경상이익율(%)	△1.8	1.3	8.1	8.6	2.3	2.9	5.1

\* 2000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01. 6월), 제조업 기준

- 한편 전반적인 금리인하에 따라 제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선진국보다 취약한 수준
  - 금융비용 대비 영업비용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비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97	'98	'99	'00	미국(99)	일본(99)
· 이자보상비율(%)	129.1	68.3	96.1	157.2	354.0	367.5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금융비용

## 2. 노동시장 여건

- 우리 노동시장 여건은 아직 절대적 수준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의 경우 미국의 1/3 수준

	한 국	대 만	싱가포르	미 국	일 본	영 국
· 시간당비용(US\$)	6.71	5.62	7.18	19.20	20.89	16.56
· 시간당비용지수	35	29	37	100	109	86

\* 1999년 기준, 시간당비용지수는 미국 = 100 기준

-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 등으로 고용증진이나 실업을 제고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



둔 것으로 평가

	고용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실업율(%)	
	'99	'00	'99	'00	'99	'00
한국	1.4(14위)	3.8(3위)	0.8(15위)	1.5(7위)	6.3(15위)	4.1(9위)
일본	△0.8(27위)	△0.2(26위)	△0.2(28위)	△0.2(27위)	4.7(9위)	4.7(11위)
미국	1.5(13위)	1.3(15위)	1.2(11위)	1.1(13위)	4.2(7위)	4.0(7위)
아일랜드	6.3(1위)	4.7(2위)	4.0(1위)	3.3(1위)	5.6(13위)	4.3(10위)

\* OECD Employment Outlook(2001), ( )은 OECD 29개국중 순위

\* 경제활동인구는 증가율 기준

□ 그러나, 노동비용 측면에서 지속적인 임금인상으로 단위노동비용도 지속 상승하여 경쟁력 약화의 주 요인으로 분석

	1인당 보수 증가율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88~'98	'99	'00	'88~'98	'99	'00
한국	10.9(3위)	12.2(3위)	8.0(5위)	6.5(4위)	2.1(11위)	2.9(6위)
일본	1.7(26위)	△1.1(29위)	0.1(29위)	0.3(26위)	△2.4(29위)	△1.7(29위)
미국	3.5(18위)	4.3(8위)	4.5(12위)	2.0(13위)	1.6(13위)	1.0(20위)

\* OECD Employment Outlook(2001), ( )은 OECD 29개국중 순위

\* '88~'98년은 평균치 기준이며 OECD 26개국

○ 또한, 임금의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도 OECD 25개국 평가에서 20위에 그쳐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수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벨기에	독일
· 부가가치노동생산성(US\$)	30,935	48,744	66,341	45,124	63,904	50,926
· 생산성지수(한국=100)	100.0	157.6	214.5	145.9	206.6	164.6

\* OECD National Account(2001), '00년 기준



□ 특히, 우리 나라는 노사관련 제도나 관행이 경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 OECD는 한국의 근로자 보호수준이 경직적인 것으로 평가

	한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영국
· 정규직보호수준	2위	1위	27위	16위	21위
· 비정규직보호수준	15위	21위	27위	15위	27위
· 정규직+비정규직	7위	13위	26위	10위	25위

\* OECD Employment Outlook(1999), 27개국중 순위, 90년대말 기준

\* 정규직+비정규직 보호수준은 26개국중 순위

○ IMD보고서도 양적 성과에 비해 노사관계는 낮게 평가

고용증가율	근로시간	노사관계	근로의욕	노사분규
9위	12위	46위	32위	39위

○ 또한, 노사분규의 경우 전체 건수는 많지 않으나 분규강도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어 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 분쟁건수(건)	198	144	2,319	205
· 참가인원(천명)	92(0.46)	26(0.18)	15(0.01)	141(0.69)
· 손실일수(천일)	1,366(6.9)	102(0.71)	705(0.3)	242(1.18)

\* ILO 노동통계연감(2000), ( )는 1건당 기준

### 3. 물류 여건

□ 우리 나라 국가물류비는 99년 기준 78조 9천억원으로 GDP대비 16.3%를 차지하여 일본의 10.6%(98기준) 및 미국의 10.1%(99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96	'97	'98	'99	미국('98)	일본('98)
· 국가물류비(10억원)	63,754	69,590	74,170	78,892	8,860억불	47,080억엔
· GDP대비 비중(%)	15.2	15.4	16.5	16.3	10.1	10.6

\* 99년도 국가물류비 현황(건설교통부, 2001)

- 또한, 기업측면에서도 매출액대비 물류비 비중이 99년 12.5%를 차지하여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주요국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 >

	'91	'94	'96	'97	'99	'00
· 한 국	8.5	14.3	12.6	12.9	12.5	-
· 미 국	7.9	7.7	8.0	9.0	7.3	9.4
· 일 본	7.9	6.1	6.6	6.5	6.1	5.9

\*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CLM),  
일본 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JILS)

- IMD보고서도 우리 나라의 재화·용역의 물류기반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

< The distribution infrastructure of goods and service(순위) >

한 국	싱가포르	미 국	일 본	대 만	말레이시아	태 국
31위	1위	14위	16위	17위	20위	26위

\* [2001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01. 4월

- 물류비 구성을 요소별로 분석해 보면 우리 나라는 수송비의 비중(69.9%)이 물류비의 대부분을 차지



< 국가물류비 구성요소별 비교(10억원, %) >

	수송비	재고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 1998	50,244(67.7)	14,976(20.2)	1,411(1.9)	961(1.3)	3,420(4.6)	3,158(4.3)
· 1999	55,178(69.9)	14,300(18.1)	1,721(2.2)	1,055(1.3)	3,340(4.2)	3,298(4.2)

○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수송비 비중이 높아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수송비 축소가 필수적

	한 국	미 국	일 본
· 주요국별 수송비 비중(%)	69.9	59.6	64.8

□ 이와 같은 고물류비 구조는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 부족과 물류표준화 등 물류기반여건이 부족한 데 기인

< 주요국의 사회간접자본 비교 >

	한 국	일 본	대 만	싱가포르	미 국
· 인프라 유지.개발(최고 10)	4.51	5.48	5.52	8.66	6.88
· 도로여건 (Km/Km <sup>2</sup> )	0.88	3.05	0.54	4.71	0.65
· 철도여건 (백만톤-Km)	10,803	22,620	1,179	-	2,144,136
· 수상운송 여건(최고 10)	4.74	6.85	6.74	8.76	7.58

\* 인프라 유지.개발, 수상운송여건 : [2001년도 세계경쟁력 연감(IMD)]

\* 도로여건 : 2001년 세계 도로통계(IRF)

\* 철도여건 : 2001년 국제 통계연감(통계청), 화물운송 기준

< 주요국의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 보급율(98) >

한 국	일 본	미 국	유 럽
16.8%	30.0%	50.0%	90.0%





#### 4. 입지 여건

- 우리 나라의 지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개별입지의 경우 주요국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
  - 그러나, 그간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로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
  
- 한편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안정으로 산업단지의 실질 매매가격도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
  - 그러나, 2001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인상이 산업단지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상승추세로 반전

< 주요 산업단지(공장용지) 매매가격 현황(평/만원) >

	'97	'98	'99	'00	'02.1월
· 남동공단	81	64	78	82	120
· 반월공단	75	65	76	80	110

\* 자료 : 산업단지공단(2002. 1월), 실거래가격 기준

- 반면 외국인전용공단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매우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

	천안	광주평동	대 불	진 사
· 임대료(월, 원/m <sup>2</sup> )	121	40	27	86

- 산업단지 가격을 기준으로 주요국별로 비교해 볼 경우 우리 나라는 평균적으로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의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외국인전용공단 임대료는 북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용경쟁력이 큰 것으로 평가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북아일랜드
보편적 분양방식	분양	분양	임대	임대	임대
분양형태	· 토지매각 · 토지임대	· 토지매각 · 토지임대	· 토지매각 · 토지임대 · 표준공장	· 토지임대 (30~60년) · 표준공장 임대	· 토지임대 (30~999년) · 토지매각 · 선공장 임대
분양가 (㎡당)	· 80~179\$ (평당 342~766천원)	· 128~256\$ (평당 547~1,096천원)	· 저개발지역 → 153\$ · 개발지역 → 566\$	-	· 6~41\$ (평당 26~176천원)
임대료(년)	· 토지 1.5\$ (외국인전용공단 기준)	-	· 토지 7.6\$ · 표준공장 7~9\$	· 토지 10.2 ~ 21.4\$ · 표준공장 11.4~46.4\$	· 토지 0.62~1.7\$ · 선공장 35~62\$

□ 개별 산업단지의 매매가격 수준을 비교해 볼 경우 경쟁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 주요 단지별 매매가격 현황('00년말 기준, 만원/평) >

한국(남동공단)

일본(기요하라)

말련(코타키나발루)

태국(라클라망)

87

129

15~18

17~20

○ 반면 토지임대료의 경우 주요국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비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주요국별 토지임대료 현황('00년말 기준, \$/㎡) >

한국  
(시화단지)

싱가포르  
(주룽단지)

말레이시아  
(슈퍼코리더)

중국  
(상해포동신구)

중국  
(성도경제기술개발구)

6.6

19.42

13.12

8.6

10~15

## 5. 과학 및 기술개발 여건

□ 우리 나라는 지속적으로 R&D투자 확대를 추진한 결과 최근 양적 지표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한 국		미 국 (99)	일 본 (99)	독 일 (00)	싱가포르 (99)
	'97	'00				
총 R&D지출(백만\$)	12,810	12,249 (8위)	243,548 (1위)	131,970 (2위)	46,159 (3위)	1,392 (26위)
1인당 R&D지출(\$)	279	259 (21위)	882 (4위)	1,043 (2위)	561 (7위)	400 (16위)
R&D지출/GDP(%)	2.69	2.68 (7위)	2.64 (6위)	3.04 (2위)	2.46 (8위)	1.65 (14위)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과학기술부, 2001)

\* ( )은 [2001년도 세계경쟁력 연감(IMD)의 순위

○ 또한, 연구개발 인력도 선진국 수준까지 근접하여 기반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한 국		미 국 (97)	일 본 (99)	독 일 (99)	영 국 (98)
	'97	'00				
연구개발인력(만명당)	30.1	33.8	41.0	52.1	29.3	27.1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과학기술부, 2001)

\*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OECD, 2001)

○ 한편, 기술개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특허의 국내 등록건수도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

	한국(99)	미국(98)	일본(98)	독일(98)	싱가포르(98)
· 특허권 국내출원건수	121,750	262,787	437,375	202,771	44,948
· 특허권 국내등록건수	52,890	147,520	141,448	51,685	2,291

\* [2000년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 [Industrial Property Statistics(WIPO, 1998)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는 달리 질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

○ 우리 나라 논문발표수의 경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대 만
'96	'98	'00				
6,449건	9,555건	12,232건	251,023건	68,134건	64,190건	9,226건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과학기술부, 2001), '00년 기준

○ 독자 개발한 기술수출규모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

	한 국		미 국 ( '99)	독 일 ( '99)	일 본 ( '98)	중 국 ( '98)
	'97	'99				
기술수출액(백만\$)	163	193	36,467	12,519	6,997	5,521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과학기술부, 2001)

□ 특히, OECD 평가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R&D투자보다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환경적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

	정책수립 추진체계	정책평가 시스템	과학기반 관리체계	산업 R&D 지원	기술확산 지원	무형자산 투자 촉진
한 국	□	△	△	□	◎/△	□
미 국	△	◎/□	◎/□	◎/□	◎/□	◎/△
일 본	△	□	◎/△	△	◎/□	△
영 국	□	◎/□	◎/□	◎/□	◎	◎/△
독 일	□	□	□	□	◎/□	◎/△
핀란드	◎	□	◎	◎/□	□	◎/□

\* ◎ : 모범정책사례, □ : 약간의 정책조정 필요, △ : 상당한 정책조정 필요(OECD, 1998)

## 6. 인적자원 개발 여건



□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 개발여건은 아직 기반시설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낙후된 것으로 분석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 공공교육비/GDP(%)	3.575	7.174	4.471	4.377	3.637
· 교사1인당 학생수(초등교육)	28.7	16	19	17	25
· 교사1인당 학생수(중등교육)	20.0	15	14	15	20

\* 공공교육비 비중은 99년, 교사1인당 학생수는 한국 '00, 미국 '96, 영국 및 독일 '97, 싱가포르 '96년 기준

\* [교육통계편람] (한국교육개발원, '00),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00], [99 UNESCO Statistical Yearbook]

○ 반면, 취학율의 경우 매우 높으며, 특히 고등교육 취학율은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분석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 총인구 대비 고등교육이수자(98, %)	34.0	36.0	45.0	22.0	26.0

□ 한편, IM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이나 배출인력이 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

< 주요국별 교육관련 제도의 경쟁력 >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 교육체계 전반	44위	24위	12위	46위	3위
· 대학교육과정	47위	5위	14위	49위	4위
· 자격증소지 기술자	36위	29위	20위	16위	9위

\* 시장의 수요에의 충족도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

\* [2001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01. 4월

7. IT기반 여건



□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정부주도의 정보화 추진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 IT기반이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평가

-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 국내 보유컴퓨터, 인터넷 인구 등의 지표는 세계 선진국 수준
  - 다만, IT기반의 확립 이후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 나라의 투자규모는 다소 높은 수준

	한 국	미 국	독 일	중 국	일 본
· 정보통신투자/GDP(%)	0.96 (8위)	0.413 (34위)	0.22 (45위)	1.916 (1위)	0.55 (25위)
· 보유컴퓨터 국제점유율(%)	3.17 (9위)	29.34 (1위)	5.63 (3위)	3.31 (6위)	9.06 (2위)
· 인터넷인구(1천명당)	401.78 (7위)	488.18 (4위)	245.41 (20위)	17.60 (42위)	267.75 (19위)

\* [Simens International Telecom Statistics 2000], [Computer Industry Almanac], ( )은 [2001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IMD)의 순위

\* 정보통신투자는 98년, 보유컴퓨터점유율 및 인터넷 인구는 '00년 기준

□ 반면, 자국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바탕을 둔 IMD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종사인력의 기술수준, 기업간 기술협력 등의 부문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한 국	미 국	독 일	싱가포르	일 본
· 전자상거래 충족도	23위	3위	10위	5위	31위
· 종사인력 기술수준	24위	8위	46위	7위	39위
· 기업간 기술협력	33위	4위	11위	9위	8위

\* [2001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01. 4월

### III. 경쟁여건에 대한 評價 및 政策的 時事點

#### 1. 경쟁여건에 대한 평가



- 최근 경쟁여건은 비용측면에서 금리를 제외한 임금, 물류, 입지 등 요소비용의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
  - 물류비용의 경우 아직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
  - 노동시장 여건도 현재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경쟁력이 있으나 임금인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안정적인 추세를 기록하던 입지비용도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 여파로 상승추세로 반전하여 안정화대책이 필요
  
- 이러한 요소비용과는 달리 R&D여건이나 IT 등 기반여건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향후 성장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분석
  - IMF이후 추진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등에 따라 개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
  
- 특히, 앞으로 저비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보다 관행·제도등 질적인 측면의 여건 개선에 주력할 필요
  - 금융시장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 노동시장 : 경직적 노사제도와 노사간 적대적 협상관행 해소
  - 기술개발 : 독자적인 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요인 개선
  - 인적자원 :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체계·과정 개편
  - IT기반 : IT종사인력의 질적제고와 기업간 협력·제휴 촉진



< IMF이후 우리 산업의 경쟁여건에 대한 평가 >

구 분	전반적 평가	개선요인	취약요인
금융비용 (*)	· 지속적인 금리인하 등 크게 개선 · 기업 비용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	· 99년부터 한 자리 수로 금리 하락 · 기업부채비율도 200% 내외로 하락	· 기업의 재무구조가 선진국보다 취약하여 금융비용이 선진국의 두배 수준
노동비용 (●)	· 임금인상, 노사관계 악화, 낮은 생산성 등으로 가장 큰 부담요인	· 비용측면에서 아직 선진국의 1/3 수준 · 고용·경제활동참가율 측면에서 큰 성과	· 임금·노동비용 증가율 세계 최고수준 · 노동시장의 경직성, 적대적 노사관계, 강도 높은 노사분규 등
물류비용 (☞)	· 물류비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경쟁여건이 취약	-	· 높은 물류비 비중 · 사회간접자본, 표준화 등 물류기반여건이 크게 부족
입지비용 (●)	· 평균적으로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중간수준의 비용경쟁력을 보유	· 외국인전용공단 임대료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	· 개별입지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 · 매매가격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 여파로 상승 추세
기술개발 (*)	· R&D투자등 양적인 수준으로 평가할 경우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	· R&D투자, 연구인력, 특허등록건수 등은 지속적으로 세계적 수준을 유지	· 기술수출등 독자적 기술개발 다소 미흡 · 평가·관리·무형자산투자등 환경요인 취약
인적자원 (☞)	·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기반여건이나 교육체계가 아직 미흡한 수준	· 고등교육 취학율은 선진국 수준	· 교육기반여건이 아직 부족한 수준 · 교육체계, 교육과정이 시장 수요 미반영
IT 기반 (*)	·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컴퓨터, 인터넷 등 기반여건 크게 개선	· IT투자비중,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인구 등은 세계 10위권 이내	· 종사인력 기술수준이나 기업간 기술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





##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 ① 지속적인 경쟁여건 개선 추진

-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요소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쟁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시급
  - 최근 임금인상 추이와 후발개도국의 경제개방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이 저임노동력에 기반한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여건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분야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할 필요

**사례)** · 핀란드는 임금, 조세체계 등의 경쟁력은 크게 낙후된 반면 IT여건, 기술개발 여건 등은 세계 최고 수준

· 아일랜드는 노사관계, 실업률 등은 크게 미흡한 반면 세계최고 수준의 입지비용, 창업여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수준이나 기술개발 여건은 낙후된 반면 안정적 노사관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여건을 보유

- 특히, 요소비용의 상승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과도한 물류비용이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물류비용 완화정책의 추진이 필요
  -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로 기업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급격한 임금인상의 자제노력이 필요
  - 부동산 가격안정을 통해 산업용지 가격의 안정화 유도 필요

### ② 양적인 성장보다 제도·관행의 개선에 주력

- 우리 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투자규모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
  - R&D 투자규모, IT 투자규모 등은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양적인 지표는 대부분 크게 개선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제도나 잘못된 관행이 기업활동에 가장 큰 부담요인



으로 작용

- 노동시장의 경우 강도 높은 노사분규로 생산·수출의 차질이 발생하고 경직적인 노사체도로 효율적인 노사관리비용 발생
- 인적자원도 정규교육과정이 산업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훈련비용 발생

□ 따라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투자 중심의 양적인 수단보다 제도·관행의 개선이 시급

- 금융시장 : 추가적인 금리인하보다 기업의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리비용 완화 추진
- 노동시장 : 경직적인 노사관련 제도 완화, 노사간 협력분위기 조성, 생산성 바탕의 임금구조 정착
- 기술개발 : 정부의 직접투자보다 평가 및 관리, 개발기술의 확산,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 등 환경요인을 개선
- 인적자원 :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육과정이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개방된 체계를 구축

### ③ 경쟁여건 평가에 기반한 투자순위 재조정

□ 우리 나라의 경쟁여건은 각 부문별로 다소 상이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기술개발 여건, IT기반여건 등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개선
- 반면, 물류여건이나 인적자원 개발여건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따라서, 무조건적인 투자규모의 확대보다는 이러한 경쟁여건 평가에 기반하여 재정 투자순위를 재조정 할 필요

- 입지의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을 추진하면서 개별입지 비용의 완화와 기존 산업단지의 적절한 활용을 추진
- 기술개발이나 IT부문도 현재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환경적인 여건의 개선에 주력
- 반면 아직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물류부문은 물류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
-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교육관련 기반 시설여건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